

2018학년도 논술전형 문제 해설

인문사회계열Ⅱ(오후)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이른 시기에 동아시아 세계에서 유일한 문자는 한동안 중국에서 만들어진 한자였다. 문자가 없었던 중국 주변 민족들은 말로는 자민족의 말을 하면서도 표기를 위해서는 한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한자는 중국 민족이 그들의 말을 표기하기 위해 고안된 문자이기 때문에 주변의 민족들은 글을 쓸 때 자신들의 말과는 다른 중국어의 질서를 따라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자민족의 고유한 말을 자유롭게 적을 수도 없었다.

물론 우리 민족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우리말을 적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삼국 시대부터 한자의 음이나 새김을 빌려 우리말을 적는 차자 표기법이 나타났다. 그러나 차자 표기법은 한자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적는 방법인 만큼 우리말을 온전하게 표기하기는 어려웠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은 바로 이러한 문자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하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주변 여러 나라에서 나온 소리에 관한 이론을 익혔다. 중국에서 발전한 이론에서는 소리에 ‘아음(어금닛소리), 설음(혓소리), 순음(입술소리), 치음(잇소리), 후음(목소리)’ 등의 5음이 있다는 생각과 소리에는 ‘청탁’의 구별이 있다는 생각 등을 수용했는가 하면, 몽골의 이론에서는 음절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이른바 ‘음절 3분법’ 설을 수용하였다. 새로운 문자를 만들기 위하여 각국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모든 언어 이론을 섭렵한 뒤,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생각만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 가운데 음절 3분법을 받아들인 사실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 당시 중국은 문물, 제도, 학문 등 모든 면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였기 때문에 언어 이론 역시 중국의 이론을 가장 발전한 것으로 보는 일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세종은 이러한 중국의 음절 2분법을 정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신 음절 3분법을 택한 것이다.

나

복지 국가의 등장은 역사의 빛나는 승리라고 해도 좋을 만큼 인류의 이상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누적되는 국가의 재정 적자, 비대해진 국가 관료제, 국민의 노동 의욕 감소, 국가 경쟁력 하락 등으로 인하여 복지 국가는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쟁과 효율, 개인의 선택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세력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된 현실에 대한 새로운 대응이 바로 제3의 길이다. 이를 주창한 앤서니 기든스는 서구식 근대화가 내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이론적 노력을 기울였다. 기든스가 말하는 ‘제3의 길’은 ‘제1의 길’과 ‘제2의 길’을 넘어서려는 새로운 정치적 프로그램이다. 제1의 길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일컫는 북유럽 국가의 사회 민주주의 기획이라면, 제2의 길은 시장에서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개혁이다. 제3의 길은 유럽의 복지 국가에는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미국과 같은 신자유주의 국가에는 사회적 평등을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제1의 길과 제2의 길에 대한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기든스는 국가가 개인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전통적 사회 민주주의도 반대하지만, 연대와 평등의 개념이 없는 신자유주의의 개인주의도 반대한다. ‘제3의 길’이란 경제적 효율의 달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동시에 지향하자는 것이다.

다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 살고 있는 부시먼 마을에 어느 날 백인 비행기 조종사가 마시고 버린 빈 콜라병 하나가 떨어진다. 부시먼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콜라병이 신의 것이라고 굳게 믿고 신에게 돌려주기 위해 콜라병을 하늘을 향해 던진다. 하지만 거룩한 신이 이를 받을 리 만무하다. 결국 부시먼들이 콜라병을 소유하게 된다. 콜라병은 부시먼들에게 그야말로 생면부지의 물건이다.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부시먼들에게 익숙한 사물의 질서로부터 비껴나 있는 물건이었던 것이다. 콜라병을 처음 마주했을 때 부시먼들의 반응은 실은 라디오 모양의 다리미를 마주할 때 우리의 반응과 다르지 않다. 사물을 이해하는 인식 체계는 특정한 문화나 상황 속에서 형성된다. 부시먼들에게 콜라병이 생면부지의 물건으로 다가온 것은 그들이 우리와 다른 인식 체계와 문화적인 토양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쓰임새를 알아내려는 궁리 끝에 부시먼들은 콜라병 주둥이로는 가죽에 무늬를 찍을 수 있고, 병 바닥으로는 곡식을 빵을 수 있으며, 사냥할 때 쓰는 돌을 날카롭게 가는 데도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콜라병을 만든 사람의 의도와는 분명 다르지만 자신들의 삶에 유용한 쓰임새를 찾아낸 것이다.

라

테오에게

오늘 바라본 자연 풍경을 정확히 전달할 자신이 없으면서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초록, 빨강, 흰색, 노란색, 푸른색, 갈색, 회색이 이루어 내는 조화에 강렬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땅은 아주 어두운 색을 띠는데, 그걸 그리기 위해 흰 물감을 한 튜브 반이나 써야 했다. 그 밖에도 빨강, 노랑, 갈색, 황토색, 검정, 시에나 황갈색, 흑갈색 등을 써서 흑갈색에서부터 짙은 와인 색까지, 그리고 희미한 황금색을 띠는 빨간빛 등 다양한 종류의 홍갈색을 낼 수 있었다. 높이대와 빛을 받으면서 밝게 반짝이는 싱싱한 풀밭의 경계를 그리는 일이 남아 있었는데, 그건 정말이지 그려 내기 힘들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스케치가 완성되었다. 그 그림이 의미가 있으며, 무언가 말할 가치가 있다고 확신한다. 그것이 무슨 말이든.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한 번도 유화를 배우지 않은 게 다행스럽게 여겨진다. 유화를 정식으로 배웠더라면 이런 인상은 무시하고 지나쳤을 게 틀림없다. 내가 포착하고 싶은 건 바로 그런 것인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할 수 없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뿐이라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그렸는지 모르겠다. 그저 내 앞에 펼쳐지는 풍경 앞에 하얀 판을 놓고 앉아 있었는데.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혼자 말했다. 이 하얀 화판은 다른 무언가가 되었다.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고 그림을 한쪽에 세워 두었다. 좀 쉬고 나서 다시 그림 앞으로 가 두려움에 잠긴 채 바라보았다. 여전히 흡족해할 수 없었다. 기억 속에는 낮에 본 장관이 생생하게 남아 있어서 도저히 그 그림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장면의 흔적은 남아 있었다. 그 풍경이 나에게 말을 걸었고, 그것을 빠른 속도로 받아 적었다. 내가 그렇게 받아 적은 것은 판독할 수 없는 단어와 실수, 결합을 담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전히 숲이나 너도밤나무, 여러 인물들이 나에게 들려준 것의 일부가 남아 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 준 방법이나 체계 안에서 습득한 인습적인 언어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에서 나온 언어다.

마

나는 젊어서부터 방랑하며 글 읽음이 그다지 정밀하지 못하여, 비록 육경·자사 같은 글도 섭렵만 하였을 뿐 근원을 깊이 연구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제가의 장구를 다룬 글이겠습니까? 이미 그 글에 익숙하지 못하면서 그 문체를 본뜨고 그 어구를 도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릇 출판물이 점차 많아짐은 대개 후학들에게 보탬이 있으려는 것인데, 만약 모두 답습만 한다면 이는 옛것을 그대로 베낀 것이니 한갓 종이와 먹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뜻을 귀중히 여김은 대개 이래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옛 시인들이 비록 새 뜻을 창조하더라도 그 어구가 원만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은 대개 경전과 역사서, 제자백가의 글을 힘써 읽어서 마음을 단련하여, 입에 익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를 읊조리며 창작할 적에는 참고하고 헤아려 이쪽저쪽에서 가져다가 시의 재료를 삼았습니다. 이와 달리 나는 옛 성현의 말에 익숙하지 못하고 옛 시인의 문체를 본받기를 부끄러워하여, 갑자기 시를 짓게 될 적에는 말라붙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새말을 창조하게 되어 어구가 어색하고 우스운 데가 많습니다. 옛 시인들은 뜻을 창조하였지 어구는 창조하지 않았는데, 나는 뜻과 어구를 아울러 창조하면서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합니다.

아! 이 세상 사람들은 현혹됨이 심하여, 비록 도적의 물건이라도 볼 만한 것이 있으면 구경만 할 뿐이니, 누가 그 유래를 따지겠느냐? 백세 뒤에 만일 그대 같은 이가 있어서 그 참과 거짓을 판단한다면, 남의 글을 잘 흠친 사람이라도 도적으로 잡힐 것입니다. 나의 생소하고 깔깔한 말이 오늘 그대의 칭찬처럼 칭송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대의 말은 오래 지나면 반드시 증명될 것입니다.

바

퓨전은 이미 우리에게 낯선 말이 아니다. ‘융해, 융합, 합병’을 뜻하는 이 단어의 ‘원조’는 록과 재즈를 결합한 1960년대 퓨전 재즈다. 지금은 드라마, 영화, 건축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퓨전이 ‘서로 다른 것을 섞어 새로운 문화 코드를 만들어 냈’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문명은 서로 부딪치고 뒤섞이며 발전한다. 역사는 개방적이고 다른 문명과 섞이는 데 적극적인 국가가 번성했음을 증명한다. 자기네 말을 쓰지 않는 사람을 모두 ‘야만인’이라 경멸하던 아테네는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도시 국가에 머물렀다. 반면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보다 뛰어난 문명을 받아들였던 로마는 ‘지성은 그리스 인보다 못하고, 체력은 게르만 인보다 못하며, 기술에서는 에트루리아 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은 카르타고보다 뒤떨어졌음에도’ 거대 제국으로 성장했다.

퓨전은 문화 요소가 고갈되어 가는 21세기 인류 문명이 선택한 문화 수단이다. 역설적이게도 퓨전은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제각각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갖추고 있을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 섞을 만한 재료가 없다면 퓨전도 없다. 퓨전이 유행할수록 고유한 문화 요소들이 더욱 빛을 보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래서 각 민족의 고유문화 보전이 절실한 과제일뿐더러 순수 학문과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소중한 자산으로 대우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들이 ‘재료’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퓨전의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사

옛날에 원숭이를 기르는 사람이 그 먹이로 도토리를 주면서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를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원숭이들은 모두 화를 냈다. “그러면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 명분이나 실제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원숭이들은 모두 화를 내다가 기뻐하였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옳고 그름의 양극을 조화시킨다. 그러나 인간은 작위와 분별을 통해 얻은 지혜를 참된 것으로 알고 언제나 자신이 옳고 현명하다는 아집에 사로잡혀 있다. 다음 이야기는 인간의 자기중심적 사고와 편견의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있다.

“옛날 바닷새가 노나라 도성 밖에 날아와 앉았다. 왕이 이 새를 친히 종묘 안으로 데리고 와 술을 권하고, 음악을 연주해 주며, 소와 돼지, 양을 잡아 극진히 대접하였다. 그러나 새는 어리둥절해하고 슬퍼할 뿐, 고기 한 점 먹지를 않고 술도 한 잔 마시지 않은 채 사흘 만에 죽고 말았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왕이 바닷새를 극진히 대접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바닷새는 바닷새 그 자체로 인정해야 한다. 만약 바닷새를 인간의 인식 세계로 끌고 와 인간의 가치 기준에 맞게 변형한다면 바닷새가 지닌 본연의 가치는 상실되고 마는 것이다. 가치가 상실되는 정도가 아니라 새를 죽이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인간은 이분법적 사고나 고정 관념을 쉽게 버리기 어렵다. 그러므로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자신을 구속하는 일체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가능할 때 대립적인 사고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너와 나를 따져 차별하지 않을 수 있다.

아

어지러운 곡선 속에 직선 하나가 그려진 이 그림은 개미의 동선을 그린 도형입니다. 개미를 부지런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서 충격이 큼니다. 꼭 할 일 없는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여기저기 동네 골목길을 헤집고 다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지요. 이 도형에서 보는 개미들의 행동이 머리카락 뒤엉킨 것처럼 어수선했어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먹이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이가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누구도 모르는 것이기에 멋대로 배회할 수밖에 없지요. 일정한 목적 지점을 세워 놓고 일직선으로 다니다가는 먹이를 발견할 확률은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미의 곡선 흔적을 다른 시각에서 보면 ‘노이즈’가 됩니다. 정보 이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잡음’이지요. 원하지 않는 것,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섞여 있는 것, 옥에 섞인 티 같은 것입니다. 미셸 세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파라지트’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 노이즈를 가리키는 말인데, 프랑스 어에서는 ‘기생충’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가 노이즈를 좋다고 기생충을 반갑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방향이란 말처럼, 이 노이즈라는 것도 반전시키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생충이 그렇듯 노이즈도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따라다니게 마련인 자연 현상의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노이즈를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예상하지 않았던 효과가 생기고 발전을 꾀할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빠르고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우선 느낌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 느낌 속에는 의외로 많은 즐거움이 있다. 영화 ‘하워드 엔드’를 보면, 주인공이 정원을 산책하며 한가롭게 소설을 읽는 장면이 나온다. 그는 소설의 한 구절을 읽고 또 읽는다. 그때 언어는 산책 길 풍경의 일부가 되고, 또한 감정의 일부가 된다. 한 권의 책이 이렇게 천천히 읽힐 때 비로소 책 읽기의 즐거움은 온전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휴가나 여행의 참된 즐거움 역시 느낌과 함께 사라져 버린 것 같다. 휴가는 말 그대로 텅 빈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의 휴가는 정신없이 서두르며 보다 많은 것을 바쁘게 즐겨야 하는 것이 되었다. 새벽잠을 설치고 유원지로 달려가서 잠시의 틈도 없이 놀아야 휴가다운 휴가가 되는 것이다. 여행도 더 이상 나그네가 되어 이곳저곳을 어슬렁거리는 것이 아니다. 9박 10일 동안 유럽의 12개국을 돌아보느라 정신이 없어야 여행다운 여행을 한 것이 된다. 조랑말을 타고 한 달 동안 금강산을 유람하던 조선 시대 선비들이 누린 느낌의 즐거움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심심함 또한 빠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중 하나이다. 요즘 사람들은 심심할 겨를이 없다. 일할 때도 바쁘지만, 놀거나 쉴 때에도 바쁘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심심할 때에만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이 많다.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은 별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길 수 있으려면 우선 심심해야 한다. 때때로 심심한 사람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그리워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상상의 날개를 펼 수도 있다. 유전 법칙을 발견한 멘델은 심심할 때가 많았다. 그는 평생 조용한 수도원에 살면서 수도원 뒤뜰에 완두콩을 심고 그것이 자라는 것을 관찰했다. 완두콩 싹이 자라는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려면 얼마나 심심해야 하겠는가? 자연의 법칙이나 진리는 심심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인지도 모른다.

-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새로움’이 창출된 계기와 방식을 각각 찾아서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문제 2]** 제시문 (라)와 (마)에 나타난 ‘창작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고, 새로움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데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제시문 (바)와 (사)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문제 3]**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는 현대인들이 갖춰야 할 자세와 이로 인해 얻어지는 효과를 제시문 (아)와 (자)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